

## 칼빈과 17세기 개혁주의 선교 신학

김 학 유

[선교학 · 부교수]

### 서론

칼빈에게도 선교의 비전이 있었는가? 오랜 동안 선교학자들 가운데서 논란의 주제로 등장해 온 질문이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개신교 선교 활동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의 선교 활동의 공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한다. 혹자는 개혁자들의 선교신학적 이해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고, 혹자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뒤에 감추어진 적극적인 선교 사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루터의 선교 사상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칼빈의 선교 사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혹자는 칼빈이 비록 직접적인 선교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매우 적극적인 선교적 마인드(mission-mind)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혹자는 칼빈이 해외

선교 사역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칼빈의 선교에 관한 소극적인 자세는 그의 신학의 당연한 결과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란 자유 대학(Free University)의 선교학 교수였던 Van Den Berg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루터파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극적인 선교 사상과 달리 칼빈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선교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sup> 칼빈의 선교 사상이 당대에는 직접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을지라도 후대의 선교 사상과 사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Chaney는 칼빈의 선교 사상이 전 세계의 개신교 선교 사상의 기초와 틀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sup>.

이 소논문은 칼빈의 선교 사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가 후대에 끼친 선교적 영향과 열매들을 살펴봄으로써 칼빈이 해외 선교 사역에 소극적이었거나, 칼빈의 신학이 해외 선교 사역에 장애물이었다는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되었다.

## I. 칼빈의 선교 사상

### 1. 칼빈의 선교 이해

실제적인 선교 사역(practical missionary work)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칼빈이 분명히 직접적인 해외 선교 사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비록 그가 해외 선교 사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을지라도 그의 신학과 사상만큼은 결코 비선교적(non-missionary)이거나 반선교적

1) Johannes Van Den Berg, "Calvin's Missionary Messag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2(1950): 174-187.

2) Charles L. Chaney, "The Missionary Dynamic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Reformed Review* 17(1964), pp. 24-38.

(anti-missionary)이지는 않았다. 당시의 정치적, 지리적,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칼빈이 선교 사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개신교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바다와 동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세력과의 신학적 논쟁, 개신교 안에서의 신학적 논쟁, 국가 간의 전쟁 등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sup>3)</sup>

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주석들을 참고해 볼 때, 그가 각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명확히 의식하고 선교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칼빈의 선지서 주석들을 참고해 볼 때 칼빈이 이방인들의 회심과 개종에 매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강력히 소망했다. 루터나 그의 제자들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교관을 가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칼빈과 그의 후예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다.<sup>4)</sup>

당시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칼빈이 종종 지구의 반대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실과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교도들에 관한 한 루터가 회교도들에 대하여 알고 있던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칼빈 역시 해외, 특별히 브라질로 이민 간 개신교도들의 형편과 현지인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sup>5)</sup>

3)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1992), p. 245.

4) Johannes Van Den Berg, *Constrained by Jesus' Love* (Kampen, Netherlands: Kok, 1956), pp. 4-12.

5) Van Den Berg, pp. 7-8. Cf. 칼빈은 당시 브라질에서 설교가로 사역하던 P. Richer가 보내 준 편지들을 통해 브라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정황을 매우 생생하게 알고 있었다.

선교 사역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칼빈의 선교에 관한 소극적인 자세는 그의 신학의 당연한 결과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란 자유 대학(Free University)의 선교학 교수였던 Van Den Berg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루터파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극적인 선교 사상과 달리 칼빈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선교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sup> 칼빈의 선교 사상이 당대에는 직접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을지라도 후대의 선교 사상과 사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Chaney는 칼빈의 선교 사상이 전 세계의 개신교 선교 사상의 기초와 틀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sup>

이 소논문은 칼빈의 선교 사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가 후대에 끼친 선교적 영향과 열매들을 살펴봄으로써 칼빈이 해외 선교 사역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칼빈의 신학이 해외 선교 사역에 장애물이었다는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되었다.

## I. 칼빈의 선교 사상

### 1. 칼빈의 선교 이해

실제적인 선교 사역(practical missionary work)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칼빈이 분명히 직접적인 해외 선교 사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비록 그가 해외 선교 사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을지라도 그의 신학과 사상만큼은 결코 비선교적(non-missionary)이거나 반선교적

1) Johannes Van Den Berg, "Calvin's Missionary Messag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2(1950): 174-187.

2) Charles L. Chaney, "The Missionary Dynamic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Reformed Review* 17(1964), pp. 24-38.

(anti-missionary)이지는 않았다. 당시의 정치적, 지리적,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칼빈이 선교 사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개신교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바다와 동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세력과의 신학적 논쟁, 개신교 안에서의 신학적 논쟁, 국가 간의 전쟁 등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sup>3)</sup>

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주석들을 참고해 볼 때, 그가 각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명확히 의식하고 선교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칼빈의 선지서 주석들을 참고해 볼 때 칼빈이 이방인들의 회심과 개종에 매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강력히 소망했다. 루터나 그의 제자들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교관을 가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칼빈과 그의 후예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다.<sup>4)</sup>

당시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칼빈이 종종 지구의 반대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실과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교도들에 관한 한 루터가 회교도들에 대하여 알고 있던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칼빈 역시 해외, 특별히 브라질로 이민 간 개신교도들의 형편과 현지인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sup>5)</sup>

3)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1992), p. 245.

4) Johannes Van Den Berg, *Constrained by Jesus' Love* (Kampen, Netherlands: Kok, 1956), pp. 4-12.

5) Van Den Berg, pp. 7-8. Cf. 칼빈은 당시 브라질에서 설교가로 사역하던 P. Richer가 보내 준 편지들을 통해 브라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정황을 매우 생생하게 알고 있었다.

칼빈의 선교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여 하는 부분이 바로 그의 신학적 사상과 더불어 선교와 연관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선교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그가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그의 신학적 명제들 가운데 하나인 예정론을 근거로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와 연관된 성경 주해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가 가졌던 해외 선교 사역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이 지니고 있었던 선교적 이해와 사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칼빈의 선교 신학

### 1) 하나님의 주권

칼빈에게 있어서 선교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된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철저히 수동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임해야 한다고 암시적으로 가르친다. 루터의 가르침이 구원론(soteriology)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칼빈의 가르침은 하나님 중심적인(theocentric)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칼빈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Gloria Dei)에 있다고 보았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적인 성취나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선교 신학뿐 아니라 그의 신학 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한

6) Van Den Berg, pp. 10-11.

주제이기도 하다.

### 2) 종말론과 선교

칼빈의 종말론은 루터의 종말론과 달리 재림 전 세상의 변화(renewal)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교회라고 보고,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교회의 적극적인 선교 사역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 왕국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지상의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교회 본연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지상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선교 사명이 사도들에게 국한된 한시적인 사명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이러한 선교 사상은 선교적 사명이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루터나 그의 후예들의 선교 사상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는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옥으로 향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7)</sup>

### 3) 선교의 범위

칼빈은 마태복음 28:19을 해석하면서 선교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가 차별의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동등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언약의 동반자라고 해석하면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온 땅의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칼빈은 이 구절이 이사야 49:6의 예언의 완성으로 보고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요, 세상 끝까지 이르는

7) Van Den Berg, pp. 11-12.

칼빈의 선교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여 하는 부분이 바로 그의 신학적 사상과 더불어 선교와 연관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선교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그가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그의 신학적 명제들 가운데 하나인 예정론을 근거로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와 연관된 성경 주해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가 가졌던 해외 선교 사역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이 지니고 있었던 선교적 이해와 사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칼빈의 선교 신학

### 1) 하나님의 주권

칼빈에게 있어서 선교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된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철저히 수동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임해야 한다고 암시적으로 가르친다. 루터의 가르침이 구원론(soteriology)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칼빈의 가르침은 하나님 중심적인(theocentric)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칼빈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Gloria Dei)에 있다고 보았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적인 성취나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선교 신학뿐 아니라 그의 신학 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한

6) Van Den Berg, pp. 10-11.

주제이기도 하다.

### 2) 종말론과 선교

칼빈의 종말론은 루터의 종말론과 달리 재림 전 세상의 변화(renewal)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교회라고 보고,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교회의 적극적인 선교 사역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 왕국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지상의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교회 본연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지상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선교 사명이 사도들에게 국한된 한시적인 사명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이러한 선교 사상은 선교적 사명이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루터나 그의 후예들의 선교 사상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는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옥으로 향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7)</sup>

### 3) 선교의 범위

칼빈은 마태복음 28:19을 해석하면서 선교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가 차별의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동등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언약의 동반자라고 해석하면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온 땅의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칼빈은 이 구절이 이사야 49:6의 예언의 완성으로 보고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요, 세상 끝까지 이르는

7) Van Den Berg, pp. 11-12.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절은 주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의 구원, 즉 땅 끝의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라는 주제가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마가복음 16:15~20에 기록된 “온 천하”와 “만민”을 동일하게 보면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복음전파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칼빈의 성경 주해를 참고해 볼 때, 그가 선교적인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지닌 인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칼빈의 선교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혹자가 지적하는 것같이 그가 해외 선교에 무관심했거나, 신학적 이유로 인해 선교적 태만을 주장한 인물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해외 선교 사역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지녔던 인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 4) 선교와 성령

Van Den Berg는 칼빈주의가 선교 사역과 연관하여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신학 체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sup>9)</sup> 이러한 성령 의존 사상은 칼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성경 주해들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보다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8) 김학유, “복음서(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선교 사상,”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신복음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2), p. 329.

9) Van Den Berg, p. 18. Van Den Berg는 칼빈주의가 어떤 다른 신학적 체계보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신학적 체계를 지적하면서, 칼빈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인간의 내면적인 변화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인간 사회의 변화 또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에 등장하는 그의 성경 주해들을 살펴보면 칼빈의 성령 의존 사상이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마태복음 28:18에 기록된 “모든 권세”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언급된 “권세”라는 말은 단순한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신적인”(supreme and divine) 권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질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sup>10)</sup> 그는 “권세”가 사도들이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의 공급원이라고 해석하면서, 사도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바로 이러한 권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선교 사역과 성령의 연관성에 관한 칼빈의 이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누가복음 24:49의 주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복음 전파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은총을 입은 자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선교 사역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격이 갖추어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sup>11)</sup>

#### 5) 선교 방법

칼빈은 선교 사역의 방법과 내용을 언급하면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믿음에 근거한 세례 배필을 선교 사역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선교 명령을 해석하면서, 가르치

10) 김학유, “복음서(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선교 사상,” p. 327.

11) 위의 책, pp. 341-342.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절은 주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의 구원, 즉 땅 끝의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라는 주제가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마가복음 16:15~20에 기록된 “온 천하”와 “만민”을 동일하게 보면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복음전파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칼빈의 성경 주해를 참고해 볼 때, 그가 선교적인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지닌 인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칼빈의 선교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후자가 지적하는 것같이 그가 해외 선교에 무관심했거나, 신학적 이유로 인해 선교적 태만을 주장한 인물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해외 선교 사역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지녔던 인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 4) 선교와 성령

Van Den Berg는 칼빈주의가 선교 사역과 관련하여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신학 체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sup>9)</sup> 이러한 성령 의존 사상은 칼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성경 주해들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보다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8) 김학유, “복음서(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선교 사상,”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신복음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2), p. 329.

9) Van Den Berg, p. 18. Van Den Berg는 칼빈주의가 어떤 다른 신학적 체계보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신학적 체계를 지칭하면서, 칼빈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인간의 내면적인 변화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인간 사회의 변화 또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에 등장하는 그의 성경 주해들을 살펴보면 칼빈의 성령 의존 사상이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마태복음 28:18에 기록된 “모든 권세”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언급된 “권세”라는 말은 단순한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신적인”(supreme and divine) 권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질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sup>10)</sup> 그는 “권세”가 사도들이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의 공급원이라고 해석하면서, 사도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바로 이러한 권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선교 사역과 성령의 연관성에 관한 칼빈의 이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누가복음 24:49의 주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복음 전파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은총을 입은 자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선교 사역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격이 갖추어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sup>11)</sup>

#### 5) 선교 방법

칼빈은 선교 사역의 방법과 내용을 언급하면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믿음에 근거한 세례 배움을 선교 사역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선교 명령을 해석하면서, 가르치

10) 김학유, “복음서(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선교 사상,” p. 327.

11) 위의 책, pp. 341-342.

는 사역이 선교 사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선교 사역의 우선권이 가르침에 있다고 보고 모든 전도자들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가르치는 일을 금하고 반드시 주님이 가르치신 것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시에 강조했다.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의 사명은 교사로서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가감 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2)</sup>

칼빈은 또 다른 선교 방법의 하나로 세례의 올바른 시행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세례 전에 확실히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참 믿음과 참된 교리를 근거로 해서만 선교사들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종종 발생하는 세례 교인들의 이탈 문제와 타 종교로의 개종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른 교리와 신앙에 입각한 세례의 시행이야말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칼빈이 마가복음 16:16에 기록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구절에서 언급된 “믿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온 인류를 포함한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보장된다는 폭 넓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보편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와 같이 칼빈의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인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뛰어 넘어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을 전제로 한 철저한 예식으로서 선교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12) 위의 책, pp. 328-329, 332-333.

### III. 칼빈의 선교 사역

칼빈이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신학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적인 선교 사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이 살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과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선교 사역에 직접 개입하거나 후원을 한 흔적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 1. 프랑스 선교 사역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던 시기에 — 1538년부터 1564년 —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신학적 논쟁은 물론 유럽 사회의 준 전시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로마 가톨릭의 정치, 종교적인 압박을 피해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유럽의 각지에서 제네바로 몰려들었고, 제네바는 이들의 종교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피성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당시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화란, 영국, 독일, 헝가리 등에서 몰려온 개신교도들에게 개신교 신학,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각 나라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양육하는데 온 정열을 기울였다. 제네바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늘어난 인구와 긴급한 종교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분주했고 해외 선교 사역에 눈을 돌릴 만큼의 여력이 없었다.<sup>14)</sup> 이러한 시급한 필요들 외에도 제한된 정보로 인해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유럽을 제외한 해외에

13) 같은 책, pp. 330-331, 335-336.

14) W. Stanford Reid,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er,"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No 3(1983), p. 65.



는 사역이 선교 사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선교 사역의 우선권이 가르침에 있다고 보고 모든 전도자들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가르치는 일을 금하고 반드시 주님이 가르치신 것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시에 강조했다.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의 사명은 교사로서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가감 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2)</sup>

칼빈은 또 다른 선교 방법의 하나로 세례의 올바른 시행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세례 전에 확실히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참 믿음과 참된 교리를 근거로 해서만 선교사들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종종 발생하는 세례 교인들의 이탈 문제와 타 종교로의 개종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른 교리와 신앙에 입각한 세례의 시행이야말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칼빈이 마가복음 16:16에 기록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구절에서 언급된 “믿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온 인류를 포함한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보장된다는 폭 넓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보편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와 같이 칼빈의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인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뛰어 넘어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을 전제로 한 철저한 예식으로서 선교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12) 위의 책, pp. 328-329, 332-333.

### III. 칼빈의 선교 사역

칼빈이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신학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적인 선교 사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이 살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과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선교 사역에 직접 개입하거나 후원을 한 흔적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 1. 프랑스 선교 사역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던 시기에 — 1538년부터 1564년 —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신학적 논쟁은 물론 유럽 사회의 준 전시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로마 가톨릭의 정치, 종교적인 압박을 피해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유럽의 각지에서 제네바로 몰려들었고, 제네바는 이들의 종교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피성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당시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화란, 영국, 독일, 헝가리 등에서 몰려온 개신교도들에게 개신교 신학,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각 나라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양육하는데 온 정열을 기울였다. 제네바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난 인구와 긴급한 종교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분주했고 해외 선교 사역에 눈을 돌릴 만큼의 여력이 없었다.<sup>14)</sup> 이러한 시급한 필요들 외에도 제한된 정보로 인해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유럽을 제외한 해외에

13) 같은 책, pp. 330-331, 335-336.

14) W. Stanford Reid,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er,"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No 3(1983), p. 65.

관한 정보나 지식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거나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개신교도들과 개신교 지도자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선교 활동에 동참했다. 비록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타문화 선교 사역은 아니었는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제네바에서 신학 훈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교신, 필요시 개신교 목사들을 각국으로 파송하는 일, 핍박 받는 개신교도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기도 지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위한 교리적 훈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sup>15)</sup>

이미 알려진 바대로 칼빈은 프랑스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Huguenot)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개신교 목사들의 파송이었다. 파송 당시 초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던 관계로 초기에 파송된 개신교 목사들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555년부터 1563년 사이에 파송된 개신교 목사들의 숫자는 대략 88명에 이른다.<sup>16)</sup> 1562년 당시 프랑스에 흩어져 있던 위그노 공동체가 대략 2,150개 정도였고, 각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총 합계가 대략 300만 명 정도였다. 칼빈을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요청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만 할 정도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결성된 “개신교 네트워크”(Protestant Network)에 참가한 지역들의 이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Aix-en-Provence, Mimes, Montpellier, Toulouse, Nerac, Bordeaux, La Rochelle, Nantes, Caen, Dieppe, Tours,

15) 같은 책, pp. 57-58.

16) 같은 책, p. 69.

Orleans 등.

## 2. 브라질 선교 사역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에 관한 칼빈의 지식은 주로 성경과 고전들(Classical Literatures)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칼빈이 이교도들이 살고 있던 식민지 여러 나라들, 특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과 접촉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접촉하고 있었던 식민지가 있었는데, 제네바 교회가 해외에 파송했던 브라질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R. Pierce Beaver는 칼빈이 브라질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최초의 남미 선교사였다고 주장했다.<sup>17)</sup>

### 1) 빌레가농(Villegagnon)

칼빈이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 관여를 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의 한 섬에 두 명의 목회자를 원주민 선교를 위해 파송한 기록이다. 이 두 명의 선교사는 제네바에서 훈련을 받은 목회자로서 브라질에 살고 있던 인디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파송된 것이다.<sup>18)</sup> 제네바 교회가 브라질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지도자였던 빌레가농(Villegagnon)의 요청으로 앞의 두 목사들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선교사들을 브라질로 파송하게 되는데, 결국은 빌레가농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만다. 칼빈의 이러한 선교적인 노력은 브라질로 파송되었다가 유일하게 생존하여 제네바로 귀환한 장 드 레리(Jean de Lery)의 저술에 고스란히 담겨있다.<sup>19)</sup>

17) Robert Pierce Beaver,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The Reformed Journal*, 17(1967): 14-20.

18) W. Stanford Reid, 위의 책, pp. 70-71.

19) 칼빈의 브라질 선교 사역의 역사적 현장을 잘 그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최초의

관한 정보나 지식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거나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개신교도들과 개신교 지도자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선교 활동에 동참했다. 비록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타문화 선교 사역은 아니었을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제네바에서 신학 훈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교신, 필요시 개신교 목사들을 각국으로 파송하는 일, 핍박 받는 개신교도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기도 지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위한 교리적 훈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sup>15)</sup>

이미 알려진 바대로 칼빈은 프랑스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Huguenot)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개신교 목사들의 파송이었다. 파송 당시 초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던 관계로 초기에 파송된 개신교 목사들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555년부터 1563년 사이에 파송된 개신교 목사들의 숫자는 대략 88명에 이른다.<sup>16)</sup> 1562년 당시 프랑스에 흩어져 있던 위그노 공동체가 대략 2,150개 정도였고, 각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총 합계가 대략 300만 명 정도였다. 칼빈을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요청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만 할 정도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결성된 “개신교 네트워크”(Protestant Network)에 참가한 지역들의 이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Aix-en-Provence, Mimes, Montpellier, Toulouse, Nerac, Bordeaux, La Rochelle, Nantes, Caen, Dieppe, Tours,

15) 같은 책, pp. 57-58.

16) 같은 책, p. 69.

Orleans 등.

## 2. 브라질 선교 사역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에 관한 칼빈의 지식은 주로 성경과 고전들(Classical Literatures)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칼빈이 이교도들이 살고 있던 식민지 여러 나라들, 특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과 접촉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접촉하고 있었던 식민지가 있었는데, 제네바 교회가 해외에 파송했던 브라질 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R. Pierce Beaver는 칼빈이 브라질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최초의 남미 선교사였다고 주장했다.<sup>17)</sup>

### 1) 빌레가농(Villegagnon)

칼빈이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 관여를 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의 한 섬에 두 명의 목회자를 원주민 선교를 위해 파송한 기록이다. 이 두 명의 선교사는 제네바에서 훈련을 받은 목회자로서 브라질에 살고 있던 인디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파송된 것이다.<sup>18)</sup> 제네바 교회가 브라질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지도자였던 빌레가농(Villegagnon)의 요청으로 앞의 두 목사들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선교사들을 브라질로 파송하게 되는데, 결국은 빌레가농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만다. 칼빈의 이러한 선교적인 노력은 브라질로 파송되었다가 유일하게 생존하여 제네바로 귀환한 장 드 레리(Jean de Lery)의 저술에 고스란히 담겨있다.<sup>19)</sup>

17) Robert Pierce Beaver,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The Reformed Journal*, 17(1967): 14-20.

18) W. Stanford Reid, 위의 책, pp. 70-71.

19) 칼빈의 브라질 선교 사역의 역사적 현장을 잘 그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최초의

빌레가농은 Nicolas Durand 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위그노의 후원자였던 Gaspard de Colony의 도움과 앙리 2세(Henry II)의 후원을 받아 1555년에 브라질로 식민지 정탐여행을 떠난 인물이다. 빌레가농과 함께 브라질로 식민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죄수 출신들이거나 위그노 출신들이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Rio de Janeiro 근방의 한 섬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요사태를 일으키자 빌레가농은 Colygn와 칼빈에게 편지를 보내 좀 더 양질의 사람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 편지의 영향으로 후일 브라질로 가서 현지에서 정착해 살던 Jean de Lery가 당시 빌레가농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그의 책에 고스란히 적어 놓고 있다. 식민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가 빌레가농의 편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그 편지는 제네바 교회가 즉시 빌레가농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목회자들)과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well instructed in the Christian religion)을 보내 주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개혁하고 나아가서 야만인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20)</sup>

빌레가농의 편지를 받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놓고 제네바 교회가 의논한 사실을 Jean de Lery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편지들과 소식들을 접하자마자, 제네바 교회는 그렇게 먼 나라, 이국 땅에서, 그것도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료는 Jean de Lery가 쓴 *Journal de Bord de Jean de Lery en la terre de Bresil*(1557)인데, 이 책이 1578년 *Histoire d'un Voyage fait en la terre de Brasil*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Cf. 김재성,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선교 사상과 실제,” 『복음주의와 한국교회』(김명혁 교수 은퇴기념논총,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4), pp. 72-73.

20) David B. Calhoun,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Presbyterian: Covenant Seminary Review* 5 No 1 (Spring, 1979): 30.

통치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sup>21)</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로 제네바 교회가 두 명의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브라질로 파송하게 된다. 제네바 교회의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면 당시 제네바의 목사회(Company of Pastor)가 내린 역사적인 결정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556년 8월 25일 화요일, 프랑스가 정복한 브라질의 새로운 섬들로 목회자들을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편지를 받은 결과, M. Pierre Richer와 M. Guillaume Charretier가 선발되었고, 이 둘을 주님의 보호하심에 맡기며 이 교회의 편지와 함께 파송하였다.<sup>22)</sup>

제네바 교회 목사회의 결정에 따라 두 명의 목회자들이 브라질로 파송되었고, 그들과 함께 Jean de Lery를 포함하여 11명의 평신도들이 브라질로 파송되었다. 당시 칼빈이 비록 제네바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네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 충고를 했다. 그때 파송을 받은 지도자들이 빌레가농에게 보내는 칼빈의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들을 파송하는 일에 칼빈이 매우 깊이 관여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sup>23)</sup> 제네바 교회의 파송을 받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브라질에 도착한 후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환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미 가톨릭 총독의 위협과 강장을 받은 빌레가농이 가톨릭으로 회심하므로 인해 그들은 예기치 못한 순교와 추방을 경험케 된 것이다. 빌레가농은 칼빈과 종교개혁을 거부하며 칼비주의자들을 살해하거나 강제로 추방시켜 버렸다. 빌레가농의

21) 같은 책, p. 30.

22) 같은 책, pp. 30-31.

23) 같은 책, p. 31.

빌레가농은 Nicolas Durand 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위그노의 후원자였던 Gaspard de Colony의 도움과 앙리 2세(Henry II)의 후원을 받아 1555년에 브라질로 식민지 정탐여행을 떠난 인물이다. 빌레가농과 함께 브라질로 식민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죄수 출신들이거나 위그노 출신들이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Rio de Janeiro 근방의 한 섬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요사태를 일으키자 빌레가농은 Colygny와 칼빈에게 편지를 보내 좀 더 양질의 사람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 편지의 영향으로 후일 브라질로 가서 현지에서 정착해 살던 Jean de Lery가 당시 빌레가농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그의 책에 고스란히 적어 놓고 있다. 식민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가 빌레가농의 편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그 편지는 제네바 교회가 즉시 빌레가농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목회자들)과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well instructed in the Christian religion)을 보내 주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개혁하고 나아가서 야만인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20)</sup>

빌레가농의 편지를 받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놓고 제네바 교회가 의논한 사실을 Jean de Lery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편지들과 소식들을 접하자마자, 제네바 교회는 그렇게 먼 나라, 이국 땅에서, 그것도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료는 Jean de Lery가 쓴 *Journal de Bord de Jean de Lery en la terre de Bresil*(1557)인데, 이 책이 1578년 *Histoire d'un Voyage fait en la terre de Brasil*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Cf. 김재성,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선교 사상과 실제,” 『복음주의와 한국교회』(김명혁 교수 은퇴기념논총,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4), pp. 72-73.

20) David B. Calhoun,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Presbyterian: Covenant Seminary Review* 5 No 1 (Spring, 1979): 30.

통치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sup>21)</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로 제네바 교회가 두 명의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브라질로 파송하게 된다. 제네바 교회의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면 당시 제네바의 목사회(Company of Pastor)가 내린 역사적인 결정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556년 8월 25일 화요일, 프랑스가 정복한 브라질의 새로운 섬들로 목회자들을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편지를 받은 결과, M. Pierre Richer와 M. Guillaume Charretier가 선발되었고, 이 둘을 주님의 보호하심에 맡기며 이 교회의 편지와 함께 파송하였다.<sup>22)</sup>

제네바 교회 목사회의 결정에 따라 두 명의 목회자들이 브라질로 파송되었고, 그들과 함께 Jean de Lery를 포함하여 11명의 평신도들이 브라질로 파송되었다. 당시 칼빈이 비록 제네바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네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 충고를 했다. 그때 파송을 받은 지도자들이 빌레가농에게 보내는 칼빈의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들을 파송하는 일에 칼빈이 매우 깊이 관여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sup>23)</sup> 제네바 교회의 파송을 받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브라질에 도착한 후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환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미 가톨릭 총독의 위협과 강제를 받은 빌레가농이 가톨릭으로 회심하므로 인해 그들은 예기치 못한 순교와 추방을 경험케 된 것이다. 빌레가농은 칼빈과 종교개혁을 거부하며 칼비주의자들을 살해하거나 강제로 추방시켜 버렸다. 빌레가농의

21) 같은 책, p. 30.

22) 같은 책, pp. 30-31.

23) 같은 책, p. 31.

배신으로 인해 제네바 교회의 최초의 해외 선교 사역이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결국 순교와 추방이라는 아픔만 안고 최초의 개신교 남미 선교 사역은 막을 내려야만 했다.

## 2) Richier 선교사

제네바 교회가 비록 남미에서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를 얻지는 못했을 지라도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선교 전략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브라질 선교지의 상황과 선교 전략을 편지를 통해 칼빈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앞에서 언급된 두 명의 선교사 가운데 하나인 Richier 선교사이다. 그의 선교 사역과 선교 전략, 선교사의 삶과 자세 등은 후일 칼빈의 선교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Richier 목사는 서신을 통해 자신의 선교지 경험을 칼빈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는데, 그가 1557년 4월에 칼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브라질 “원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개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결과가 그들에게(원주민)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려는 우리의 소망이 결국 좌절되었다는 점이다”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Richier는 좌절하지 않고 그의 선교적인 비전을 내려놓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여섯 명의 젊은이들을 원주민들의 마을로 들여 보내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워 오도록 하는 매우 치밀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시행하기도 했다. Tubinambas라는 인디언 부족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했다는 점은 현대 선교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Richier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교의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에돔 같은 족속이 미래에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4) 같은 책, p. 31

라고 말하면서 식민지에 있는 개혁교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인들과 구별된 기록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Richier 선교사의 이러한 선교적 접근 방법, 즉 삶을 통한 선교 방법(Life-style evangelism)은 다양한 현대 선교 전략들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Calhoun은 Richier 선교사의 선교 사상에서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칼빈의 선교 사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alhoun이 지적하고 있는 Richier 선교사의 선교 사상과 칼빈의 선교 사상과의 유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교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장소나 인종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신다는 점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준비하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선교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씀 증거와 선교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빈이나 Richier 선교사나 공통적으로 삶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교지의 원주민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며 어떤 진리를 지니고 있는 종교인가를 가르쳐 주기 전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원주민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갖게 하는

배신으로 인해 제네바 교회의 최초의 해외 선교 사역이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결국 순교와 추방이라는 아픔만 안고 최초의 개신교 남미 선교 사역은 막을 내려야만 했다.

## 2) Richier 선교사

제네바 교회가 비록 남미에서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를 얻지는 못했을 지라도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선교 전략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브라질 선교지의 정황과 선교 전략을 편지를 통해 칼빈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앞에서 언급된 두 명의 선교사 가운데 하나인 Richier 선교사이다. 그의 선교 사역과 선교 전략, 선교사의 삶과 자세 등은 후일 칼빈의 선교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Richier 목사는 서신을 통해 자신의 선교지 경험을 칼빈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는데, 그가 1557년 4월에 칼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브라질 “원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개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결과가 그들에게(원주민)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려는 우리의 소망이 결국 좌절되었다는 점이다”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Richier는 좌절하지 않고 그의 선교적인 비전을 내려놓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여섯 명의 젊은이들을 원주민들의 마을로 들여 보내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워 오도록 하는 매우 치밀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시행하기도 했다. Tubinambas라는 인디언 부족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했다는 점은 현대 선교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Richier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교의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애덤 같은 족속이 미래에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4) 같은 책, p. 31

라고 말하면서 식민지에 있는 개척교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인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Richier 선교사의 이러한 선교적 접근 방법, 즉 삶을 통한 선교 방법(Life-style evangelism)은 다양한 현대 선교 전략들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Calhun은 Richier 선교사의 선교 사상에서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칼빈의 선교 사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alhun이 지적하고 있는 Richier 선교사의 선교 사상과 칼빈의 선교 사상과의 유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교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장소나 인종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신다는 점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준비하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선교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씀 증거와 선교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빈이나 Richier 선교사나 공통적으로 삶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교지의 원주민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며 어떤 진리를 지니고 있는 종교인가를 가르쳐 주기 전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원주민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종교에 대한 교리와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전도학이나 선교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삶을 통한 전도(Life-style Evangelism) 또는 현존 전도(Presence Evangelism)와 같은 의미 있는 전도 전략을 이미 시행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왕국의 성장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서서히 그러나 중단 없이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도나 선교 사역에 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선교 사역의 환경이 어렵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 3) Jean de Lery

Jean de Lery는 브라질에 살면서 원주민들을 누구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다. 특별히 그는 Tupinambas 부족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때론 그들 가운데 들어가 함께 살기도 했다. 그는 빌레가농이 칼빈을 배반하여 칼빈주의자들을 죽이지만 없었다면 브라질에서 상당한 선교적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것은 나의 의견입니다만, 만일 빌레가농이 개혁주의 종교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가 그 나라(브라질)에서 오랫동안 남아 머물 수만 있었다면 원주민들 가운데 몇몇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sup>26)</sup>

25) 같은 책, p. 31.

26) 같은 책, p. 31.

Jean de Lery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악한 전통들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원주민들의 전통 속에 들어있는 귀한 덕목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선교적으로 매우 탁월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기도하고, 원주민 언어의 일부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간단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Jean de Lery가 비록 평신도의 신분으로 브라질에 파송되었지만 그의 선교적 열정과 사명은 누구 못지않게 뜨거웠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언뜻언뜻 발견되는 것을 보아서, 선교를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Jean de Lery는 그가 만났던 원주민들의 전설을 듣고, 혹시 원주민들이 이미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이미 접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원주민들의 전설 속에 “흰 피부를 가진 이방인이 오래 전에 그들의 땅을 방문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에 대해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교훈을 가르쳐주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보낸 열 두 사도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Jean de Lery가 살고 있던 당시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기도 했다. 이미 잘 알려진바 대로 루터나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주님의 선교 명령이 사도들에 게만 주어진 명령이고, 세계 선교 명령은 이미 사도시대에 완성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Jean de Lery는 유럽의 교회들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제네바에서 배운 대로 선교 사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sup>27)</sup>

27) 같은 책, pp. 31-32.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종교에 대한 교리와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전도학이나 선교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삶을 통한 전도(Life-style Evangelism) 또는 현존 전도(Presence Evangelism)와 같은 의미 있는 전도 전략을 이미 시행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왕국의 성장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서서히 그러나 중단 없이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도나 선교 사역에 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선교 사역의 환경이 어렵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 3) Jean de Lery

Jean de Lery는 브라질에 살면서 원주민들을 누구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다. 특별히 그는 Tupinambas 부족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때론 그들 가운데 들어가 함께 살기도 했다. 그는 빌레가농이 칼빈을 배반하여 칼빈주의자들을 죽이지만 았었다면 브라질에서 상당한 선교적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것은 나의 의견입니다만, 만일 빌레가농이 개혁주의 종교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가 그 나라(브라질)에서 오랫동안 남아 머물 수만 있었다면 원주민들 가운데 몇몇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sup>26)</sup>

25) 같은 책, p. 31.

26) 같은 책, p. 31.

Jean de Lery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악한 전통들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원주민들의 전통 속에 들어있는 귀한 덕목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선교적으로 매우 탁월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원주민 언어의 일부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간단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Jean de Lery가 비록 평신도의 신분으로 브라질에 파송되었지만 그의 선교적 열정과 사명은 누구 못지않게 뜨거웠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언뜻언뜻 발견되는 것을 보아서, 선교를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Jean de Lery는 그가 만났던 원주민들의 전설을 듣고, 혹시 원주민들이 이미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이미 접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원주민들의 전설 속에 “흰 피부를 가진 이방인이 오래 전에 그들의 땅을 방문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에 대해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교훈을 가르쳐주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보낸 열 두 사도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Jean de Lery가 살고 있던 당시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기도 했다. 이미 잘 알려진바 대로 루터나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주님의 선교 명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고, 세계 선교 명령은 이미 사도시대에 완성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Jean de Lery는 유럽의 교회들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제네바에서 배운 대로 선교 사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sup>27)</sup>

27) 같은 책, pp. 31-32.

제네바 교회의 선교 사역이 정치 종교적인 상황과 더불어 지리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지적으로만 수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선교 사역 자체는 매우 진지하고 올바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기초로 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 위에 세워진 바른 선교 신학과 방법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짧은 선교 기간이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선교 전략을 통해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들은 제네바 교회의 브라질 선교 사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제네바 교회의 브라질 선교 사역은 분명한 선교적 목적과 사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ichier 선교사와 de Lery 선교사의 선교 방법과 선교 전략은 훗날 개신교 선교 사역의 모델이 되었으며, 선교지에서 그들의 삶과 자세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eaver는 제네바 교회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요청해 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제네바 교회가 남다른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공동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III. 화란의 개혁주의 선교신학

#### 1. 화란 개혁주의 선교학의 태동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 가톨릭 국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식민지들은 차츰 개신교 국가들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서서히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 기술과 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개신교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 바로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게 되고, 식민지 확장 정책은 자연스럽게 선교 사역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시기에 영향을 미친 개신교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화란이 해상권을 확대하며 식민지 확장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들은 동인도 회사와 같은 대기업들과 협력하며 합법적으로 식민지를 확대해 갔다.

당시 화란에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다 쫓겨난 후 1538년부터 1541년 사이에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머물렀던 칼빈이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의 학장이었던 존 스트룸(John Strum)을 만나게 된다. 존 스트룸은 화란의 개신교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칼빈은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된다. 마침내 화란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제네바에 와서 개혁신학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돌아가 화란에 개혁신학을 전파하게 된 것이다.<sup>28)</sup> 칼빈의 영향을 받은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이 화란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1618년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도르트 신경”(Canons of Dordt)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1618년 당시 도르트 총회는 선교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등하면서도 차별 없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라고 했다.<sup>29)</sup>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선교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 화란 개혁주의 선교학의 선봉이 된 인물들 가운데 J. Heurnius의 호소문은 화란 개혁교회에 선교에 대한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였다. 그가 발표했던 호소문인 *De Legatione Evangelica ad Indos capessenda Admonitio*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적 선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매우 값진 것이었다. 개신교 선교의 장애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도들도 이제부터는 학문과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적 정통성에 얽매이거나 스킨라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28) W. Stanford Reid, 위의 책, p. 72.

29) 김재성, 위의 책, p. 76.

제네바 교회의 선교 사역이 정치 종교적인 상황과 더불어 지리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지적으로만 수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선교 사역 자체는 매우 진지하고 올바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기초로 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 위에 세워진 바른 선교 신학과 방법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짧은 선교 기간이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선교 전략을 통해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들은 제네바 교회의 브라질 선교 사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제네바 교회의 브라질 선교 사역은 분명한 선교적 목적과 사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ichier 선교사와 de Lery 선교사의 선교 방법과 선교 전략은 훗날 개신교 선교 사역의 모델이 되었으며, 선교지에서 그들의 삶과 자세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eaver는 제네바 교회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요청해 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제네바 교회가 남다른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공동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III. 화란의 개혁주의 선교신학

#### 1. 화란 개혁주의 선교학의 태동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 가톨릭 국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식민지들은 차츰 개신교 국가들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서서히 위협을 받기 시작한다. 기술과 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개신교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 바로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게 되고, 식민지 확장 정책은 자연스럽게 선교 사역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시기에 영향을 미친 개신교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화란이 해상권을 확대하며 식민지 확장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들은 동인도 회사와 같은 대기업들과 협력하며 합법적으로 식민지를 확대해 갔다.

당시 화란에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다 쫓겨난 후 1538년부터 1541년 사이에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머물렀던 칼빈이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의 학장이었던 존 스트룸(John Strum)을 만나게 된다. 존 스트룸은 화란의 개신교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칼빈은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된다. 마침내 화란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제네바에 와서 개혁신학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돌아가 화란에 개혁신학을 전파하게 된 것이다.<sup>28)</sup> 칼빈의 영향을 받은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이 화란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1618년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도르트 신경”(Canons of Dordt)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1618년 당시 도르트 총회는 선교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등하면서도 차별 없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라고 했다.<sup>29)</sup>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선교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 화란 개혁주의 선교학의 선봉이 된 인물들 가운데 J. Heurnius의 호소문은 화란 개혁교회에 선교에 대한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였다. 그가 발표했던 호소문인 *De Legatione Evangelica ad Indos capessenda Admonitio*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적 선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매우 값진 것이었다. 개신교 선교의 장애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도들도 이제부터는 학문과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적 정통성에 얽매이거나 스킨라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28) W. Stanford Reid, 위의 책, p. 72.

29) 김재성, 위의 책, p. 76.

말고 학문과 이론을 뛰어 넘는 실천적인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개혁신교회에 대한 폄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세계 만방으로 나갈 수 있는 해상로가 확보되었고, 화란과 동인도회사(the East Indies)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해 화란 개혁신교회가 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갖추어졌다고 지적하였다.<sup>30)</sup>

Heurnius 외에도 W. Teellinck와 같은 탁월한 선교학자가 화란의 개혁신교회들이 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Ecce Homo*라는 책을 통하여 동인도회사가 이러한 해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후일 그는 실제로 동인도회사와 화란 개혁신교회의 연계를 통해서 동인도회사의 영적인 부분과 선교 사역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선교학의 이론을 정립한 G. Voetius, Voetius의 제자로서 선교의 교리를 완성한 J. Hoornbeek 등과 같은 탁월한 선교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 2. Gisbertus Voetius(1589~1676)

### 1) 최초의 개신교 선교학자

17세기 화란의 개혁신주의 선교학자들 가운데서 선교학 이론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G. Voetius다. 그는 화란의 개혁신주의 선교학자로서 뿐 아니라 개신교 전체를 통 털어 선교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1589년 3월 하란의 Heuden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Leiden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Vljiemen에서 7년 간(1610~1617) 목회를 했다. Vljiemen에서 목회가 끝난 후 그는 곧바로 자기 고향인 Heuden으로 가서 다시 17년간(1617~1634) 목회를 하다가 1634

30) Van den Berg, "Calvin's Missionary Message." *The Evangelical Quarterly*, 21 (1949), p. 182.

년부터 Utrecht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된다. 그가 Utrecht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선교지에서 비롯된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 해외 선교 사역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sup>31)</sup> 1615년 암스테르담에서 안수를 받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Adriaan Jacobszoon Hulsebos가 본국에 애매한 신학적 질문<sup>32)</sup>을 함으로써 Voetius가 자연스럽게 선교지의 신학적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David Bosch는 Voetius를 가리켜 "포괄적인 선교 신학을 발전시킨 최초의 개신교도"라고 했고,<sup>33)</sup> P. M. Galm은 Voetius가 "중요한 선교학적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진지하게 과학적 방법들을 사용한 최초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불렀다. H. A. Van Andel은 그가 "건고한 선교 신학(theology of missions)의 아웃라인을 그려놓았을 뿐 아니라, 선교학을 신학이라는 학문의 범주 안에 든 적법한 과학적 학문의 한 분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sup>34)</sup> 현대 개혁신주의 선교학자인 J. H. Bavinck가 그를 가리켜 "그는 정직하게 성경 안에서만 선교의 원리들을 추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연구를 수행했던"<sup>35)</sup> 선교학자라고 평할 정도로 선교의 원리와 방법 모두를 철저히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선교학자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oetius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학자요, 개신교 선교학의 틀과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31) Jan Jongeneel, "The Missiology of Gisbertus Voetius: The First Comprehensive Protestant Theology of Missions,"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Apr 1991): 47-48.

32) Adriaan J. Hulsebos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신학적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화란 출신 아버지와 현지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Voetius는 이 어린이가 적절한 요리문답 공부를 한 후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다면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했다.

33) David Bosch, 위의 책, p. 256.

34) Jan Jongeneel, 위의 책, p. 47.

35) J. H. Bavinck,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tr. David Hugh Freeman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0), xiv.

말고 학문과 이론을 뛰어 넘는 실천적인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개혁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세계 만방으로 나갈 수 있는 해상로가 확보되었고, 화란과 동인도회사(the East Indies)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해 화란 개혁교회가 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갖추어졌다고 지적하였다.<sup>30)</sup>

Heurnius 외에도 W. Teellinck와 같은 탁월한 선교학자가 화란의 개혁교회들이 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Ecce Homo*라는 책을 통하여 동인도회사가 이러한 해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후일 그는 실제로 동인도회사와 화란 개혁교회의 연계를 통해서 동인도회사의 영적인 부분과 선교 사역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선교학의 이론을 정립한 G. Voetius, Voetius의 제자로서 선교의 교리를 완성한 J. Hoornbeek 등과 같은 탁월한 선교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 2. Gisbertus Voetius(1589~1676)

### 1) 최초의 개신교 선교학자

17세기 화란의 개혁주의 선교학자들 가운데서 선교학 이론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G. Voetius다. 그는 화란의 개혁주의 선교학자로서 뿐 아니라 개신교 전체를 통 털어 선교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1589년 3월 하란의 Heuden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Leiden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Vljjmen에서 7년 간(1610~1617) 목회를 했다. Vljjmen에서 목회가 끝난 후 그는 곧바로 자기 고향인 Heuden으로 가서 다시 17년간(1617~1634) 목회를 하다가 1634

30) Van den Berg, "Calvin's Missionary Message," *The Evangelical Quarterly*, 21 (1949), p. 182.

년부터 Utrecht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된다. 그가 Utrecht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선교지에서 비롯된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 해외 선교 사역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sup>31)</sup> 1615년 암스테르담에서 안수를 받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Adriaan Jacobszoon Hulsebos가 본국에 애매한 신학적 질문<sup>32)</sup>을 함으로써 Voetius가 자연스럽게 선교지의 신학적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David Bosch는 Voetius를 가리켜 "포괄적인 선교 신학을 발전시킨 최초의 개신교도"라고 했고,<sup>33)</sup> P. M. Galm은 Voetius가 "중요한 선교학적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진지하게 과학적 방법들을 사용한 최초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불렀다. H. A. Van Andel은 그가 "견고한 선교 신학(theology of missions)의 아웃라인을 그려놓았을 뿐 아니라, 선교학을 신학이라는 학문의 범주 안에 든 적법한 과학적 학문의 한 분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sup>34)</sup> 현대 개혁주의 선교학자인 J. H. Bavinck가 그를 가리켜 "그는 정직하게 성경 안에서만 선교의 원리들을 추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연구를 수행했던"<sup>35)</sup> 선교학자라고 평할 정도로 선교의 원리와 방법 모두를 철저하게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선교학자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oetius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학자요, 개신교 선교학의 틀과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31) Jan Jongeneel, "The Missiology of Gisbertus Voetius: The First Comprehensive Protestant Theology of Missions,"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Apr 1991): 47-48.

32) Adriaan J. Hulsebos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신학적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화란 출신 아버지와 현지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Voetius는 이 어린이가 적절한 요리문답 공부를 한 후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다면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했다.

33) David Bosch, 위의 책, p. 256.

34) Jan Jongeneel, 위의 책, p. 47.

35) J. H. Bavinck,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tr. David Hugh Freeman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0), xiv.

할 수 있다. 그는 선교학의 이론적 기초를 놓았을 뿐 아니라 교회 개척과 이교도들의 회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서, 실천적 선교 사역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다.

## 2) Voetius의 선교 신학

Voetius가 자신의 선교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주로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었다. Antonius Possevinus(1533~1611), Joannes Aporius(1535~1600), Jose de Acosta(1575~1651), Thomas a Jesu(1564~1627), Philippus Rovenius(1575~1651)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Voetius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학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Philippus Rovenius였다고 한다. 당시 Rovenius는 화려 북부에서 대주교로 발탁되어 로마 가톨릭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다. Voetius는 로마 가톨릭 학자들과 끊임없는 대화(dialogue)를 하면서 혹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선교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sup>36)</sup> 그의 학문적인 방법론은 Thomas Aquinas의 방법론을 따랐고, 신학적 내용은 칼빈의 신학을 따랐는데, 특별히 칼빈의 예정론과 “soli Deo gloria”(하나님의 영광)는 그의 중요한 신학적 명제가 되었다.

그는 선교학의 기초를 “신학”과 “교회 정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 나갔는데, 그의 이러한 사상은 “선별된 신학적 논쟁”(Selectae Disputationes Theologicae)(5권, 1648~1669)와 “교회 정치”(Politica Ecclesiastica)(3권, 1663~1676)에 잘 드러나 있다. Selectae Disputationes Theologicae에서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Politica Ecclesiastica에서는 주로 교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신론, 유대교, 회교, 이방인, 국가의 사명, 진정한 종교의 검증, 교회 개척 등이고, 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교회 정치의 한 분야로서의 선교 사역을 다루고 있다.<sup>37)</sup>

36) Jan Jongeneel, 위의 책, pp. 53-54.

Voetius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글들을 남겨 놓았는데, 그의 책 “교회 개척에 관하여”(De Plantatione Ecclesiarum)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선교 사역에 관하여 기술해 놓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1)누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인가? 2)선교사들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3)선교사들을 어느 곳에 보낼 것인가? 4)어떤 종류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인가? 5)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파송할 것인가? 6)선교사들이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sup>38)</sup>

교회 개척 문제에 관해서 Voetius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 교황, 주교, 수도단, 회중들은 선교 사역의 주체로서 부적절하고 오직 교회만이 선교 사역의 적절한 주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신생 교회(younger church)가 반드시 자기 교회를 세워준 모 교회(older church)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모 교회나 신생 교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교회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왕에게 신생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신생 교회의 종교적인 문제는 신생 교회가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sup>39)</sup>

Voetius는 선교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뜻”(Valutas Dei)이라고 하면서 선교에 세 가지 목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 conversio gentilium(이교도들의 회심), 2) plantatio ecclesiae(교회 개척), 3) gloria et manifestatio gratiae divinae(하나님 은혜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영광). 그는 교회 개척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37) 같은 책, p. 54.

38) 같은 책, p. 55.

39) David Bosch, 위의 책, p. 257.

할 수 있다. 그는 선교학의 이론적 기초를 놓았을 뿐 아니라 교회 개혁과 이교도들의 회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서, 실천적 선교 사역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다.

## 2) Voetius의 선교 신학

Voetius가 자신의 선교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주로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었다. Antonius Possevinus(1533~1611), Joannes Aporius(1535~1600), Jose de Acosta(1575~1651), Thomas a Jesu(1564~1627), Philippus Rovenius(1575~1651)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Voetius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학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Philippus Rovenius였다고 한다. 당시 Rovenius는 화려한 북부에서 대주교로 발탁되어 로마 가톨릭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다. Voetius는 로마 가톨릭 학자들과 끊임없는 대화(dialogue)를 하면서 혹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선교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sup>36)</sup> 그의 학문적인 방법론은 Thomas Aquinas의 방법론을 따랐고, 신학적 내용은 칼빈의 신학을 따랐는데, 특별히 칼빈의 예정론과 “soli Deo gloria”(하나님의 영광)는 그의 중요한 신학적 명제가 되었다.

그는 선교학의 기초를 “신학”과 “교회 정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 나갔는데, 그의 이러한 사상은 “선별된 신학적 논쟁”(Selectae Disputationes Theologicae)(5권, 1648~1669)와 “교회 정치”(Politica Ecclesiastica)(3권, 1663~1676)에 잘 드러나 있다. Selectae Disputationes Theologicae에서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Politica Ecclesiastica에서는 주로 교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신론, 유대교, 회교, 이방인, 국가의 사명, 진정한 종교의 검증, 교회 개혁 등이고, 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교회 정치의 한 분야로서의 선교 사역을 다루고 있다.<sup>37)</sup>

36) Jan Jongeneel, 위의 책, pp. 53-54.

Voetius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글들을 남겨 놓았는데, 그의 책 “교회 개혁에 관하여”(De Plantatione Ecclesiarum)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선교 사역에 관하여 기술해 놓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1)누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인가? 2)선교사들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3)선교사들을 어느 곳에 보낼 것인가? 4)어떤 종류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인가? 5)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파송할 것인가? 6)선교사들이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sup>38)</sup>

교회 개혁 문제에 관해서 Voetius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 교황, 주교, 수도단, 회중들은 선교 사역의 주체로서 부적절하고 오직 교회만이 선교 사역의 적절한 주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만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신생 교회(younger church)가 반드시 자기 교회를 세워준 모 교회(older church)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모 교회나 신생 교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교회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왕에게 신생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신생 교회의 종교적인 문제는 신생 교회가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sup>39)</sup>

Voetius는 선교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뜻”(Valutas Dei)이라고 하면서 선교에 세 가지 목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 conversio gentilium(이교도들의 회심), 2) plantatio ecclesiae(교회 개혁), 3) gloria et manifestatio gratiae divinae(하나님 은혜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영광). 그는 교회 개혁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37) 같은 책, p. 54.

38) 같은 책, p. 55.

39) David Bosch, 위의 책, p. 257.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etius는 선교학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교학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신학적 지지와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것이다. Bosch는 그런 의미에서 Voetius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를 밝히고 찾아낸 인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sup>40)</sup>

Jan Jongeneel은 Voetius의 선교 신학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Voetius가 어느 다른 선교학자들보다도 먼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부르짖은 선교학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Voetius는 선교 사역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람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Jan은 Voetius가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 활동의 원인(cause)일 뿐 아니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goal)”이라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Voetius야말로 현 시대의 선교 사역자들이 잃어버렸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선교학자라고 했다. Voetius는 선교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시행되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로, Voetius는 매우 광범위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많은 신학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선교적 비전이란 단순히 서구 선교사를 이방에 사는 이교도들에게 보내는 것 정도였던 것에 반해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보다 폭넓은 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로, Voetius는 교회가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관이나 권력으로부터 어떤 제제나 통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40)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Maryknoll, 1992), pp. 256-257.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선교 사역을 수행할 때 일정한 세력이나 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교회의 선교 활동이 일정한 이데올로기, 즉 어떤 국가나 다국적 협력체의 정신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과 방법을 따라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sup>41)</sup> 교회의 선교 활동이 철저히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인간들의 권력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여 선교 사역을 수행하려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선교관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선교관을 설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IV. 청교도 선교 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개신교 국가들 가운데서 화란과 영국이 세계 선교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7세기 이후로 개신교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상 무역에 참여하였고, 적극적인 해상 무역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해상권의 확대와 더불어 식민지 확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개신교 국가들의 해상권 확대와 식민지 확장이 선교 활동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해외 선교의 동력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개신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개신교 국가들의 지리적 확장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 즉 선교적 열정과 비전이었고 보아야 한다. 도리어 화란에서 발생한 “제2의 종교개혁”(Second Reformation)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청교도 운동(Puritanism)

41) Jan Jongeneel, 위의 책, pp. 78-79.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etius는 선교학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교학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신학적 지지와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것이다. Bosch는 그런 의미에서 Voetius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를 밝히고 찾아낸 인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sup>40)</sup>

Jan Jongeneel은 Voetius의 선교 신학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Voetius가 어느 다른 선교학자들보다도 먼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부르짖은 선교학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Voetius는 선교 사역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람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Jan은 Voetius가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 활동의 원인(cause)일 뿐 아니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goal)”이라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Voetius야말로 현 시대의 선교 사역자들이 잃어버렸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선교학자라고 했다. Voetius는 선교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시행되고,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로, Voetius는 매우 광범위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많은 신학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선교적 비전이란 단순히 서구 선교사를 이방에 사는 이교도들에게 보내는 것 정도였던 것에 반해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보다 폭넓은 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로, Voetius는 교회가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관이나 권력으로부터 어떤 제제나 통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40)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Maryknoll, 1992), pp. 256-257.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선교 사역을 수행할 때 일정한 세력이나 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교회의 선교 활동이 일정한 이태올로지, 즉 어떤 국가나 다국적 협력체의 정신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과 방법을 따라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sup>41)</sup> 교회의 선교 활동이 철저히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인간들의 권력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여 선교 사역을 수행하려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선교관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선교관을 설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IV. 청교도 선교 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개신교 국가들 가운데서 화란과 영국이 세계 선교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7세기 이후로 개신교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상 무역에 참여하였고, 적극적인 해상 무역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해상권의 확대와 더불어 식민지 확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개신교 국가들의 해상권 확대와 식민지 확장이 선교 활동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해외 선교의 동력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개신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개신교 국가들의 지리적 확장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 즉 선교적 열정과 비전이었고 보아야 한다. 도리어 화란에서 발생한 “제2의 종교개혁”(Second Reformation)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청교도 운동(Puritanism)

41) Jan Jongeneel, 위의 책, pp. 78-79.

이 개신교 선교 운동의 신학적 틀과 동인을 제공했다고 보아야 한다.<sup>42)</sup>

Gisbertus Voetius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던 화란의 선교 운동과 Voetius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작성된 도르트 신경(Cannons of Dort)의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 운동은 모두 칼빈의 신학적 영향을 받아 일어난 매우 적극적인 선교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란의 해외 선교 사역은 1627년 포모사(타이완)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청교도들의 해외 선교 사역은 Alexander Whitaker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첫 발을 디디게 된다.

### 1. John Eliot(1604~1690)

청교도 정신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John Eliot가 신대륙에 발을 디디면서 청교도 선교 역사가 시작된다. 본래 그는 식민지에 있던 영국인들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차츰 인디언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인디언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1646년부터 록스버리(Roxbury) 근처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근방에 “기도하는 도시들”(Praying Towns)이라는 인디언 정착촌을 만들어 인디언 선교와 문명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1671년경에는 14개의 인디언 정착촌에 약 11,000명의 인디언들을 모아 인디언 선교와 신앙 교육에 힘을 기우렸다. 후일 필립 왕과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인디언 정착촌들이 사라져 버리기는 했지만 그의 원주민 선교에 대한 열정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인디언의 사도”(the Apostle of Indians)라고 불렀고, 그가 남긴 인디언 성경 — 1633년 엘리엇이 Algonquin 언어로 번역한 성경 — 과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은 후일에도 인디언 선교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sup>43)</sup>

42) David Bosch, 위의 책, p. 256.

43)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Grand Rapids: Zondervan,

엘리엇 선교사의 선교적 유산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의 선교 사상과 방법은 후대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 David Brainerd, 모라비안 선교사들, William Carey 등 현대 선교의 주역들에게 강력한 선교적 도전과 성경적인 선교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William Carey의 선교 사상에 끼친 영향은 후일 세계 선교 전략과 사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선교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후대에도 매우 중요한 선교의 원리로 남게 되어, 후배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 번역과 성경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 Carey가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성경 번역 사역에 뛰어든 것도 Eliot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arey가 꾸준히 접했던 모라비안(Moravian)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와 함께 Eliot의 선교 사역 방법이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David Brainerd, Cotton Mather, Jonathan Edwards 등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뿐 아니라 선교 사역에 직간접적인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역사상 보기 드문 매우 특이한 선교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선교 운동은 작은 가정 단위로 전개된 선교 운동이었다. “마르다의 포도원”(Martha's Vineyard)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가정 단위의 선교 운동은 메이휴 가정(Mayhew Family)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은 무려 150년 동안이나 지속된 매우 의미 있는 선교 운동이다.<sup>44)</sup> 1649년 영국에서 New England Company가 설립된 후, 신대륙에서의 선교 사역이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Bosch는 이 기관을 일컬어 해외 선교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 선교 기관이라고 했다.<sup>45)</sup>

1983), pp. 84-89.

44) 김재성, 위의 책, p. 78.

이 개신교 선교 운동의 신학적 틀과 동인을 제공했다고 보아야 한다.<sup>42)</sup>

Gisbertus Voetius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던 화란의 선교 운동과 Voetius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작성된 도르트 신경(Cannons of Dort)의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 운동은 모두 칼빈의 신학적 영향을 받아 일어난 매우 적극적인 선교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란의 해외 선교 사역은 1627년 포모사(타이완)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청교도들의 해외 선교 사역은 Alexander Whitaker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첫 발을 디디게 된다.

#### 1. John Eliot(1604~1690)

청교도 정신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John Eliot가 신대륙에 발을 디디면서 청교도 선교 역사가 시작된다. 본래 그는 식민지에 있던 영국인들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차츰 인디언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인디언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1646년부터 록스버리(Roxbury) 근처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근방에 “기도하는 도시들”(Praying Towns)이라는 인디언 정착촌을 만들어 인디언 선교와 문명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1671년경에는 14개의 인디언 정착촌에 약 11,000명의 인디언들을 모아 인디언 선교와 신앙 교육에 힘을 기우렸다. 후일 필립 왕과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인디언 정착촌들이 사라져 버리기는 했지만 그의 원주민 선교에 대한 열정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인디언의 사도”(the Apostle of Indians)라고 불렀고, 그가 남긴 인디언 성경 — 1633년 엘리엇이 Algonquin 언어로 번역한 성경 — 과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은 후일에도 인디언 선교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sup>43)</sup>

42) David Bosch, 위의 책, p. 256.

43)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Grand Rapids: Zondervan,

엘리엇 선교사의 선교적 유산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의 선교 사상과 방법은 후대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 David Brainerd, 모라비안 선교사들, William Carey 등 현대 선교의 주역들에게 강력한 선교적 도전과 성경적인 선교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William Carey의 선교 사상에 끼친 영향은 후일 세계 선교 전략과 사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선교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후대에도 매우 중요한 선교의 원리로 남게 되어, 후배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 번역과 성경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 Carey가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성경 번역 사역에 뛰어들어 준 것도 Eliot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arey가 꾸준히 접했던 모라비안(Moravian)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와 함께 Eliot의 선교 사역 방법이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David Brainerd, Cotton Mather, Jonathan Edwards 등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뿐 아니라 선교 사역에 직간접적인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역사상 보기 드문 매우 특이한 선교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선교 운동은 작은 가정 단위로 전개된 선교 운동이었다. “마르다의 포도원”(Martha's Vineyard)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가정 단위의 선교 운동은 메이휴 가정(Mayhew Family)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은 무려 150년 동안이나 지속된 매우 의미 있는 선교 운동이다.<sup>44)</sup> 1649년 영국에서 New England Company가 설립된 후, 신대륙에서의 선교 사역이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Bosch는 이 기관을 일컬어 해외 선교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 선교 기관이라고 했다.<sup>45)</sup>

1983), pp. 84-89.

44) 김재성, 위의 책, p. 78.

## 2. 청교도 선교 신학의 특징

Bosch는 청교도 선교 신학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예정론에 입각한 선교 사상

청교도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곧 선교라고 인식했다. 때론 예정론이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청교도 선교사들의 열정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청교도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북 아메리카의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파송하셨다는 분명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sup>45)</sup>

### 2)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

“Gloria Dei”(하나님의 영광)라는 주제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명제다.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시행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시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인간적인 동기도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선교 사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교의 시작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듯이 선교의 끝도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46)</sup>

### 3)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

청교도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선교의 동기로 삼고

45) David Bosch, 위의 책, p. 257.

46) 같은 책.

47) 같은 책.

있었다. 청교도 선교사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인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여겼다. 청교도 선교사들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덕목이 바로 버려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선교사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랑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명임을 늘 인식하며 선교 사역에 임했던 것이다.<sup>48)</sup>

### 4) 식민지 확장 정책과 연관된 선교 사역

청교도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역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식민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구 세계를 기독교 국가(Christendom)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점령한 국가들도 그들과 똑 같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청교도 선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청교도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식민지를 서구의 기독교 국가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John Eliot의 경우 “기도하는 마을”(Praying Towns)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명하신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을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Oliver Cromwell에 의하여 시도되기도 했다.<sup>49)</sup> 청교도 선교사들은 이와 같이 식민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선교 사역에 임했던 것이다.

### 5) 종말론과 연관된 선교 사상

청교도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을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생각하였다. 종말을 앞두고 인간 사회는 점차 개선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48) 같은 책.

49) 같은 책, p. 259.

## 2. 청교도 선교 신학의 특징

Bosch는 청교도 선교 신학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예정론에 입각한 선교 사상

청교도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곧 선교라고 인식했다. 때론 예정론이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청교도 선교사들의 열정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청교도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북 아메리카의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파송하셨다는 분명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sup>45)</sup>

### 2)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

“Gloria Dei”(하나님의 영광)라는 주제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명제다.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시행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인간적인 동기도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선교 사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교의 시작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듯이 선교의 끝도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46)</sup>

### 3)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

청교도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선교의 동기로 삼고

45) David Bosch, 위의 책, p. 257.

46) 같은 책.

47) 같은 책.

있었다. 청교도 선교사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인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여겼다. 청교도 선교사들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덕목이 바로 버려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선교사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랑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명임을 늘 인식하며 선교 사역에 임했던 것이다.<sup>48)</sup>

### 4) 식민지 확장 정책과 연관된 선교 사역

청교도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역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식민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구 세계를 기독교 국가(Christendom)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점령한 국가들도 그들과 똑 같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청교도 선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청교도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식민지를 서구의 기독교 국가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John Eliot의 경우 “기도하는 마을”(Praying Towns)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명하신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을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려는 사도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Oliver Cromwell에 의하여 시도되기도 했다.<sup>49)</sup> 청교도 선교사들은 이와 같이 식민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선교 사역에 임했던 것이다.

### 5) 종말론과 연관된 선교 사상

청교도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을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생각하였다. 종말을 앞두고 인간 사회는 점차 개선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48) 같은 책.

49) 같은 책, p. 259.

사회 참여와 개혁 운동으로 인해 사회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칼빈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종말의 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확실하게 몰아내셔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sup>50)</sup> 그들은 종말을 앞두고 교회(하나님의 왕국)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을 확신하면서 북 아메리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고 곧 왕성해 질 것으로 믿었다.

#### 6) 선교지 문화의 개선과 문명화 작업이 곧 선교라는 사상

천교도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특별히 Elliot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인디언들의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Cotton Mather의 경우 “우리가 인디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을 영국화(Anglicize) 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들은 선교와 서구화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sup>51)</sup> 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후대 선교학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7) 대 위임령(Great Commission)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

천교도 선교사들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역시 “대 위임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세대가 선교 명령이 사도시대에 국한되어 있었다거나, 이미 완성된 명령으로 인식했음에 반하여, 그들은 선교 명령이 아직도 유효하며 교회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순종했다.<sup>52)</sup> 대 위임령 ‘폐기설’ 내지 ‘완성론’에 굴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50) 같은 책, pp. 259-260.

51) 같은 책, p. 260.

수행한 점은 크게 칭송을 받아야 한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의 선교 사상은 부정확하지도 불분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선교 신학의 사상적 기초를 견고히 놓았을 뿐 아니라 선교 사역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선교적 비전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칼빈이 살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가 선교 사역에 소극적이었다고 평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칼빈의 활동 무대였던 제네바는 로마 가톨릭 국가들과 달리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유럽의 핍박받는 개신교도들을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했던 그의 시간과 여건들을 고려해 본다면 감히 그를 가리켜 선교에 무관심했다거나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선교적 주제에 대한 그의 주석이나 서적들을 참고해 보면, 그가 분명히 확고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교 명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그가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 관여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선교를 향한 그의 열망만큼은 결코 동시대의 다른 신학자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후예들의 선교 사상을 참고해 보면 칼빈의 사상적 영향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초로 한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전제로 한 선교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열망,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노력,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 등과 같은 개혁주의 선교 사상이 모두 칼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52) 같은 책.

사회 참여와 개혁 운동으로 인해 사회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칼빈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종말의 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확실하게 몰아내셔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sup>50)</sup> 그들은 종말을 앞두고 교회(하나님의 왕국)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을 확신하면서 북 아메리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고 곧 왕성해 질 것으로 믿었다.

#### 6) 선교지 문화의 개선과 문명화 작업이 곧 선교라는 사상

청교도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특별히 Elliot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인디언들의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Cotton Mather의 경우 “우리가 인디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을 영국화(Anglicize) 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들은 선교와 서구화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sup>51)</sup> 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후대 선교학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7) 대 위임령(Great Commission)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

청교도 선교사들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역시 “대 위임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세대가 선교 명령이 사도시대에 국한되어 있었다거나, 이미 완성된 명령으로 인식했음에 반하여, 그들은 선교 명령이 아직도 유효하며 교회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순종했다.<sup>52)</sup> 대 위임령 ‘폐기설’ 내지 ‘완성론’에 굴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50) 같은 책, pp. 259-260.

51) 같은 책, p. 260.

수행한 점은 크게 칭송을 받아야 한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의 선교 사상은 부정확하지도 불분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선교 신학의 사상적 기초를 견고히 놓았을 뿐 아니라 선교 사역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선교적 비전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칼빈이 살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가 선교 사역에 소극적이었다고 평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칼빈의 활동 무대였던 제네바는 로마 가톨릭 국가들과 달리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유럽의 폼파라는 개신교도들을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했던 그의 시간과 여건들을 고려해 본다면 감히 그를 가리켜 선교에 무관심했다거나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선교적 주제에 대한 그의 주석이나 서적들을 참고해 보면, 그가 분명히 확고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교 명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그가 해외 선교 사역에 직접 참여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선교를 향한 그의 열망만큼은 결코 동시대의 다른 신학자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후예들의 선교 사상을 참고해 보면 칼빈의 사상적 영향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초로 한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전제로 한 선교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열망,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노력,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 등과 같은 개혁주의 선교 사상이 모두 칼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52) 같은 책.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한 개혁주의 선교 사상이야말로 현대 선교사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선교 사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인간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적인 선교 사상과 인간의 노력만으로 선교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릇된 선교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본주의적 선교 사상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려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맺는다.

## 로마서 10:4의 TELOS 연구

김 추 성

[신약신학 · 조교수]

### 서론

로마서 10:4(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τέλος γὰρ νόμου Χριστὸς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παντὶ τῷ πιστεύοντι)은 바울과 율법에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1)</sup>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쓰여졌다.<sup>2)</sup>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규정함에

1) R. Badenas, *Christ the End of the Law: Romans 10:4 in Pauline Perspective* (JSNT Sup10; Sheffield: JSOT, 1985), p. 37: "in spite of undeniable progress, the interpretation of Rom 10:4 is still a bone of contention."

2)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Thomas R. Schreiner, "Paul's View of the Law in Romans 10:4-5," *WTJ* 55 (1993): 113-35; S. R. Bechtler, "Christ, the Τέλος of the Law: The Goal of Romans 10:4," *CBQ* 56: 288-308; W. S. Campbell, "Christ the End of the Law: Romans 10:4," in *Studia Biblica 1978 III: Papers on Paul and Other New Testament Authors*. Edited by E. A. Livingstone